

##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 1 - 요인 모형과 2 - 요인 모형의 검증

신 현 숙<sup>†</sup>      류 정 희      이 명 자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 차원의 양극을 구성하는 개념인지 독립된 두 개념인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청소년 534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지필검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탐색적 요인분석, AMOS를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낙관성 및 비관성과 준거변인들(심리적 안녕, 진로 태도성숙, 스트레스 대처) 간 상관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에 대한 응답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의 두 요인이 추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비관성의 역재점을 낙관성과 합당한 '1-요인 모형'과 낙관성과 비관성을 구분하고 두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지 않은 2-요인 모형'에 비하여 낙관성과 비관성을 구분하되 두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한 2-요인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좋은 모형으로 밝혀졌다. 한편 LOT-R 낙관성과 비관성 각각이 준거변인들과 이루는 단순상관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심리적 안녕 변인들(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일부 진로태도성숙 변인들(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일부 대처 변인들(긍정적 사고,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중심)과 LOT-R 낙관성 또는 LOT-R 비관성과의 상관이 유의하며, 상관의 방향성은 낙관성과 비관성에서 반대로 나타났다. 진로독립성과 소망적 사고는 LOT-R 낙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었으나 LOT-R 비관성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반면에 진로목적성과 긴장완화 및 문제부인의 대처는 LOT-R 비관성과 유의한 상관을 이루었지만 LOT-R 낙관성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LOT-R 낙관성을 통제하고 산출한 LOT-R 비관성과 준거변인 간 편상관은 대부분의 준거변인에서 유의하였으며, 마찬가지로 LOT-R 비관성을 통제하고 산출한 LOT-R 낙관성과 준거변인 간 편상관도 대부분의 준거변인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LOT-R 낙관성과 비관성의 부적 상관이  $r = -.45$ 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을 단일 차원 상에서 양극적인 구성 개념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독립된 구성개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에 관한 후속연구와 진로문제 또는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이 연구의 결과가 던지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낙관성, 비관성, 심리적 안녕, 진로성숙, 대처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현숙, (500-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화 : 062)530-2354, E-mail : shinphd@chonnam.ac.kr

최근 들어 병리적 증상이나 부적응 상태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심리적 안녕 또는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변인들을 찾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이 가운데 낙관성에 관한 연구들은 낙관성이 건강상태(Scheier & Carver, 1985), 적응적 대처행동(Scheier, Weintraub, & Carver, 1986), 대학 생활에서의 적응(Aspinwall & Taylor, 1992), 수술 이후에 건강의 신속한 회복(Scheier, Matthews, Owens, Magovern, Lefebvre, Abbott, & Carver, 1989)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대부분에서 낙관성은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generalized positive outcome expectancy)로 정의된다(Chang, 2002).

그런데 어떻게 낙관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며 보다 높은 적응수준을 유지하는 것일까? 이들이 원래부터 심리적 불편감을 덜 느껴서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대처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Scheier, Carver와 Bridges(2002)의 주장은 그럴 듯하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문제해결-중심의 적극적 대처전략들을 많이 사용하며,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상황의 현실적 측면을 수용한다. 그러나 비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 발생 자체를 부인하거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상상하거나 문제를 잊기 위한 행동을 하는 등 문제와 자신과의 거리를 두는 회피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구나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대

처전략에 있어서 차이는 심리적 불편감의 사전 수준을 통계적으로 통제했을 때도 여전히 유의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낙관성 연구들(예, 김택호, 김재환, 2004; 신정원, 2002; 조하나, 2002; Mehrabian & Ljunggren, 1997; Scheier & Carver, 1985)에서는 낙관성과 비관성을 단일 차원의 양극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간주하여, 부정적 기대를 반영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한 후 긍정적 기대를 반영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과 합산하여 낙관성의 단일 측정치를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Scheier와 Carver (1985)는 원래 두 가지 요인(긍정적으로 진술된 문항,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을 고려하면서 Life Orientation Test(LOT)를 구성하였으나, 이 두 요인의 상호상관이 -.64로 높기 때문에 두 요인은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문항 어휘(item wording)에서 다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이 단일 측정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은 것으로, 이 점수가 낮을수록 비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LOT를 수정·보완한 Life Orientation Test-Revised(LOT-R)로 수집한 자료에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Mehrabian과 Ljunggren(1997)은 낙관성 요인 하나를 확인하였다. 또한 긍정적 기대를 반영하는 문항들과 부정적 기대를 반영하는 문항들을 구분하고, 두 응답 군의 점수들 간에 높은 부적 상관이 존재함을 밝히면서 Scheier와 Carver(1985)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낙관성과 비관성은 두 개의 차원(two unipolar dimensions)이 아니라, 양극적 단일 차원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낙관성과 비관성이 양극적 단일 차원을 이룬다는 주장은 Marshall, Wortman, Kusulas, Hervig와 Vickers(1992)에 의해서 반박되었다. 그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과 맺는 상관관계와 비관성이 심리적 안녕과 맺는 상관관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을 밝혔다. 또한 비관성을 통제한 후 낙관성과 심리적 안녕의 편상관(partial correlation)이 여전히 유의함을 검증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낙관성과 비관성의 2-요인 모형을 검증하여, 낙관성과 비관성이 두 개의 독립된 구성개념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낙관성의 단일 측정치와 적응 변인들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의 역을 비관성과 적응 변인들 간 관계를 해석하는데 적용한다면, 낙관성과 비관성 각각이 건강과 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연구방법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안녕이나 신체적 건강 변인들과 맺는 상관관계의 양상이 낙관성과 비관성에서 서로 다르다는 결과는 낙관성과 비관성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낙관성은 긍정적 정서나 외향성과 높은 상관을 이루지만 부정적 정서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고, 비관성은 부정적 정서나 신경증과 높은 상관을 이루지만 긍정적 정서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Mroczek, Shapiro, Aldwin, Ozer와 Bosse(1993)는 노인 대상 연구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안녕과 신체적 질병에 각각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 이후, Robinson-Whelen, Kim, MacCallum과 Kiecolt-Glaser(1997)는 중년기 성인과 노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관성은 1년 후의 불안, 지각된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지만, 낙관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볼 때, 낙관성과 비관성은 서로 다른 측면의 심리적 안녕이나 건강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둘째, Smith, Pope, Rhodewalt와 Poulton(1989)은 낙관성 또는 비관성과 중복되어 있을 수 있는 긍정적 정서나 부정적 정서 혹은 신경증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낙관성과 비관성의 독립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한지를 살펴 보았다. 또한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는 신경증, 특성불안, 자기속달감(sense of self-mastery), 자아존중감과 같은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대학생의 낙관성이 우울 및 대처전략과 이루는 편상관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낙관성과 우울의 편상관, 낙관성과 대처의 편상관이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ang, Maydeu-Olivares와 D'Zurilla(1997)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그리고 비관성의 영향력이 통제된 이후에도 낙관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하며,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그리고 낙관성의 영향력이 통제된 이후에도 비관성이 삶의 만족도와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낙관성과 비관성 각각이 심리적 안녕과 건강에 고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낙관성과 비관성이 독립된 구성개념이라고 주장할만한 증거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확인적 요

인분석을 통해 2-요인 모형이 1-요인 모형보다 자료에 더 잘 부합한다는 결과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연구(Creed, Patton, & Bartrum, 2002), 대학생 대상 연구(Chang, D'Zurilla, & Maydeu-Olivares, 1994), 중년기 성인 및 노인 대상 연구(Robinson-Whelen et al., 1997)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었다.

넷째, 낙관성과 비관성이 별개의 독립된 구성개념임을 지지하는 또 다른 증거는 낙관성 요인과 비관성 요인의 상호상관이 낮은데서 찾을 수 있다. Chang, D'Zurilla와 Maydeu-Olivares (1994)는 대학생의 낙관성 요인과 비관성 요인의 상관이  $-.52$ 이며, 이처럼 중간 수준의 상관으로는 두 요인이 단일 차원의 양극을 이룬다는 주장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Robinson-Whelen 등(1997)도 중년기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낙관성 요인과 비관성 요인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집단( $r = -.61 \sim -.63$ )에 비하여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r = -.23 \sim -.26$ )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의 부적 상관이 낮았다. 또한 Creed, Patton과 Bartrum(2002)은 청소년 집단의 LOT-R 응답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낙관성 잠재변수와 비관성 잠재변수의 상관이  $.16$ 에 불과함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 차원 상에서 양극적인 구성개념인지, 별개의 구성개념인지를 밝히기 위한 경험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나 경험적 증거 없이, 연구자 임의대로 낙관성의 단일 측정치를 산출하거나(예, 김태호, 김재환, 2004; 신정

원, 2002; 조하나, 2002), 낙관성 점수와 비관성 점수를 구분하고 있고 있다(예, 유은상, 2004).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 차원 상의 양극적 구성개념인지, 두 개의 독립된 구성개념인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듯이, 비관성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 한 후 낙관성 문항에 대한 응답과 합산한 단일 점수를 낙관성 수준의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은 낙관성과 비관성 각각이 다양한 심리적 건강, 신체적 건강, 교육 및 진로 관련 적응상태와 관계를 맺는 복잡한 양상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를 뜻하는 낙관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LOT-R을 실시하고, 이 척도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 차원 상의 양극적 구성개념인지 별개의 구성개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었던 분석방법들(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LOT-R 요인구조의 탐색,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적합도 비교, 낙관성과 비관성 간 상관관계의 유의도 검증, 낙관성과 비관성이 준거변인들과 이루는 단순상관 및 편상관의 검증)을 적용할 것이다. 준거변인들로는 선행연구에서 낙관성 또는 비관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밝혀진 심리적 안녕, 진로태도성숙, 스트레스 대처의 변인들을 포함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이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학생 534명(1학년 남학생 135명, 25.3%; 2학년 남학생 146명, 27.3%; 1학년 여학생 144명, 27.0%; 2학년 여학생 109명, 20.4%)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 측정도구

### 삶의 지향성 검사

낙관성과 비관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의 삶의 지향성 검사(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Scheier와 Carver(1985)의 LOT에서 대처 문항들을 제외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문항 3개는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긍정적 기대를 반영하며(예, “전반적으로 내게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3개는 부정적 기대를 반영하며(예,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나머지 4개는 검사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삽입된 문항이다. LOT-R은 LOT와 .95의 높은 상관을 이루어(Scheier, Carver, & Bridges, 1994) 적절한 타당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었다.

LOT-R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많이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LOT-R 총점은 부정적 기대 문항 3개를 역점수로 환산한 후, 긍정적 기대 문항 3개에 대한 응답과 합산한 점수로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LOT-R 총점을 산출하였다. 또한 낙관성과

비관성의 두 차원이 각각 독립적이며, 준거 변인들과 서로 다른 양상의 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예, 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 Creed, Patton, & Bartrum, 2002; Robinson-Whelen et al., 1997)와 본 연구에서 시도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긍정적 기대 문항 3개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LOT-R 낙관성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부정적 기대 문항 3개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LOT-R 비관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LOT-R의 원저자들은 문항 6개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를 .78, 4개월-간격 재검사 신뢰도를 .68, 28개월-간격 재검사 신뢰도를 .79로 보고하였다. LOT-R을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Creed, Patton과 Bartrum(2002)에 의하면, LOT-R 긍정적 기대 문항들의 Cronbach  $\alpha$ 는 .62, 부정적 기대 문항들의 Cronbach  $\alpha$ 는 .78이었다.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Cronbach  $\alpha$ 는 LOT-R 전체 척도에서 .72, 긍정적 기대 문항들에서 .65, 부정적 기대 문항들에서 .60이었다.

### 긍정적-부정적 정서 목록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의 긍정적-부정적 정서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을 실시하였다. PANAS는 긍정적 정서를 재는 문항 10개와 부정적 정서를 재는 문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서 제시하는 정서를 ‘지금 이 순간,’ ‘오늘,’ ‘지난 며칠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작년에,’ 또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느끼는지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많이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에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바로 그 상황과 시점에서 느끼는 정서나 일반적으로 느끼는 특성정서가 아니라 근래에 느끼는 상태정서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지난 며칠 동안' 느낀 기분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긍정적 정서 점수는 긍정적 정서를 재는 문항 10개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부정적 정서 점수는 부정적 정서를 재는 문항 10개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이 척도의 원저자들은 긍정적 정서 문항들의 Cronbach  $\alpha$ 를 .88, 부정적 정서 문항들에서는 .8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Cronbach  $\alpha$ 는 긍정적 정서에서 .85, 부정적 정서에서 .83이었다.

###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가 제작하고 이영자(1996)가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문항 5개와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 5개를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많이 그렇다)에 이르는 4점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 5개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한 후,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점수로 자아존중감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영자(1996)가 보고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79이었으며,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Cronbach  $\alpha$ 는 .80이었다.

### Beck 우울 척도

우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Beck(1967)이

개발하고 이영호(1993)가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하여 우울 증상의 정도가 상이한 4개의 답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1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총점은 0점에서 63점까지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에 대한 관심의 상실을 묻는 21번 문항을 제외하고, 20개의 문항만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까지이다. 이영호(1993)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Cronbach  $\alpha$ 는 .98이었고,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Cronbach  $\alpha$ 는 .86이었다.

### 상태-특성불안 검사 YZ형

불안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Spielberger(2000)의 상태-특성불안 검사 YZ형(STAI-KYZ)을 실시하였다. STAI-KYZ는 STAI-X형에서 우울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문항들을 제외하고, 상태불안을 재는 문항 20개와 특성불안을 재는 문항 20개를 포함하여 모두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느낀 일시적 불안이 아니라, 평소 지니고 있는 불안 성향에 있어서 안정적인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성불안 문항 20개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1(전혀 아니다)에서 4(거의 언제나 그렇다)에 이르는 4점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한덕웅 등(2000)이 보고한 특성불안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92로 높았으며,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Cronbach

$\alpha$ 도 .92이었다.

###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개인적 이해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갖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5개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47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하위 영역은 결정성으로, 자신이 선택하려고 의도하는 진로나 직업이 결정된 또는 미결정된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준비성으로,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 및 계획,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독립성으로, 진로선택의 주도성 내지는 의존성을 측정하는 문항 9개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는 목적성으로, 진로선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의 현실타협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8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확신성으로,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많이 그렇다)에 이르는 4점 Likert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한 서정선(2002)은 하위척도별 Cronbach  $\alpha$ 를 결정성에서 .91, 준비성에서 .78, 독립성에서 .77, 목적성에서 .82, 확신성에서 .79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Cronbach  $\alpha$ 는 결정성 .91, 준비성 .78, 독립성 .69, 목적성 .75, 확신성 .82이었다.

### 청소년 대처 척도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보고한 구체적인 대처행동들에 기초하여 제작된 Frydenberg와 Lewis(1993)의 청소년 대처 척도 (Adolescent Coping Scale, AC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ACS는 일반형과 응급자가 최근에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기록한 후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을 대답하는 특수형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 79개는 요인분석에 의하여 18개의 대처전략들로 범주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cheier, Weintraub와 Carver(1986)의 연구에서 낙관성과 정적 상관을 이루는 대처전략으로 밝혀진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중심, 긍정적 사고, 그리고 낙관성과 부적 상관을 이루는 대처전략으로 밝혀진 문제의 부인을 선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Strutton과 Lumpkin (1992)의 연구를 통해 비관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전략으로 밝혀진 긴장완화와 소망적 사고를 추가하였다.

각 문항은 1(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5(거의 언제나 한다)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에서 평정하였다. 원저자는 대처전략의 하위요인별 Cronbach  $\alpha$ 를 사회적 지지 .79, 문제해결중심 .77, 긍정적 사고 .70, 긴장완화 .71, 소망적 사고 .70, 문제부인 .71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Cronbach  $\alpha$ 는 사회적 지지 .89, 문제해결중심 .77, 긍정적 사고 .56, 긴장완화 .58, 소망적 사고 .66, 문제부인 .65, 전체 .80이었다.

절차

2005년 3월 중에 교과담당교사와 본 연구자의 감독 아래 학급별로 지필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가 검사에 대한 소개와 비밀보장의 유지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가 종료된 후 곧 바로 모든 검사지를 수합하였다. 연구대상은 자신의 속도대로 문항을 읽고 응답하였다. 응답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대략 30분이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을 거쳐 SPSS 통계 프로그램(Windows version 12.0)과 AMOS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낙관성과 비관성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집단과 확인하기 위한 집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전체 연구대상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모든 측정변수들에 있어서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유의도 검증은  $p < .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낙관성과 비관성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집단 1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Varimax 직각회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낙관성·비관성의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 가운데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는 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집단 2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요인 모형에서는 낙관성과 비관성을 통합한 하나의 잠재변수를 설정하였으며, 2-요인 모형에서는 낙관성 잠재변수와

비관성 잠재변수를 구분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TLI, CFI, RMSEA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  $\chi^2$ 값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표집이 클 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모수 불일치성 지수인 RMSEA를 살펴보았다. TLI와 CFI가 .95이상, RMSEA가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셋째,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비교는 TLI와 RMSEA가 좋은 모형의 기준에 해당하는 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낙관성과 비관성의 두 잠재변수 간 상관을 가정하지 않은 2-요인 모형이 두 잠재변수 간 상관을 가정한 2-요인 모형에 내재되므로, 두 개의 2-요인 모형의 비교에서는  $\chi^2$  값의 차이를 검증하는 내재된 모형 비교(nested model comparison)를 실시하였다.

넷째, 낙관성과 비관성 각각이 준거변인들과 이루는 상관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LOT-R 총점, LOT-R 낙관성 점수, LOT-R 비관성 점수와 준거변인들 간 단순상관 계수를 산출하고, 그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LOT-R 낙관성 점수와 준거변인 간 관계에서 LOT-R 비관성 점수를 통제한 편상관과 LOT-R 비관성 점수와 준거변인 간 관계에서 LOT-R 낙관성 점수를 통제한 편상관 계수를 산출하고, 그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상관계수의 유의도 검증은  $p < .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결 과



집단간 차이

과, 모든 측정변수들에 있어서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 연구대상 집단과

전체 연구대상 534명을 무선적으로 두 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한 후 *t*-검증을 실시한 결

두 하위 집단의 측정변수별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두 하위 집단의 평균차 검증 결과를

표 1. 전체 연구대상 집단과 하위 집단의 측정변수별 평균, 표준편차, *t*-검증 결과

측정변수	전체 집단 (N = 534)		하위 집단 1 (N = 267)		하위 집단 2 (N = 267)		<i>t</i>
	<i>M</i>	<i>SD</i>	<i>M</i>	<i>SD</i>	<i>M</i>	<i>SD</i>	
<b>LOT-R</b>							
총점	3.74	0.72	3.74	0.71	3.74	0.72	-0.03
낙관성	3.38	0.93	3.37	0.92	3.39	0.95	-0.25
비관성	1.89	0.75	1.89	0.74	1.90	0.75	-0.25
<b>심리적 변인</b>							
자아존중감	2.98	0.51	3.00	0.49	2.96	0.53	0.80
우울	10.97	6.94	10.62	6.40	11.31	7.43	-1.15
불안	2.37	0.57	2.35	0.51	2.39	0.62	-0.74
긍정적 정서	2.99	0.76	3.02	0.73	2.97	0.79	0.73
부정적 정서	2.28	0.78	2.27	0.74	2.29	0.82	-0.37
<b>진로태도성숙</b>							
결정성	2.99	0.76	3.02	0.77	2.95	0.74	1.13
준비성	3.00	0.54	3.01	0.53	2.99	0.55	0.38
독립성	3.14	0.51	3.13	0.49	3.15	0.53	-0.34
목적성	2.99	0.59	2.96	0.61	3.01	0.57	-0.96
확신성	2.82	0.57	2.86	0.56	2.79	0.58	1.57
<b>대처전략</b>							
긍정적 사고	3.12	0.72	3.08	0.70	3.16	0.74	-1.29
사회적 지지	3.05	0.96	3.02	0.97	3.07	0.96	-0.71
문제해결중심	3.42	0.71	3.38	0.69	3.47	0.72	-1.39
긴장완화	2.24	0.74	2.24	0.73	2.24	0.74	0.06
소망적 사고	4.00	0.67	4.03	0.68	3.98	0.66	0.80
문제부인	2.22	0.75	2.20	0.72	2.24	0.78	-0.68

표 1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

LOT-R 요인구조의 탐색

하위 집단 1의 LOT-R 응답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두 요인으로 전체 낙관성 변량의 59.46%를 설명하였다. 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재는 문항 3개는 요인 1(eigenvalue = 2.54, 설명변량 = 42.39%)로,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재는 문항 3개는 요인 2(eigenvalue = 1.02, 설명변량 = 17.07%)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LOT-R 문항에 대한 응답은 낙관성과 비관성이라는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Varimax 직각회전 이후의 요인부하량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낙관성-비관성의 요인구조에 관한 다음의 세 가지 이론적 모형들이 LOT-R을 통해 수집된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하위 집단 2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1-요인 모형으로, 낙관성과 비관성이 양극을 이루는 단일 구성개념으로 설정되었다. 모형 2와 모형 3은 모두 2-요인 모형인데, 모형 2는 낙관성 잠재변수와 비관성 잠재변수 간 상관을 가정하지 않은 2-요인 모형이며, 모형 3은 두 잠재변수 간 상관을 가정한 2-요인 모형이다. AMOS를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2. LOT-R의 문항별 요인부하량

문 항	요인 1	요인 2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82	-.11
나는 일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79	-.05
내게 뭔가 일이 잘 못 될 것만 같다.	.52	-.26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하여 늘 낙관적이다.	.07	.89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를 때, 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14	.63
전반적으로 내게는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22	.54

표 3. 낙관성-비관성의 요인구조에 관한 세 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267)

	$\chi^2$	df	p	TLI	CFI	RMSEA
모형 1	25.815	9	.002	.891	.935	.084
모형 2	70.778	9	.000	.600	.760	.161
모형 3	8.791	8	.360	.994	.997	.019

주. 모형 1은 1-요인 모형, 모형 2는 낙관성과 비관성의 상관을 가정하지 않은 2-요인 모형, 모형 3은 낙관성과 비관성의 상관을 가정한 2-요인 모형임.

절대 적합도 지수인  $\chi^2$  값이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유의하여 이 두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검증 통계치는 표집크기의 영향에 민감하므로 무시하였다. TLI와 CFI가 .95 이상 또는 RMSEA가 .05 이하인 모형을 적합도가 좋은 모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기준에 근거해 볼 때(홍세희, 2000), 세 모형 가운데 모형 3의 적합도가 가장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을 비교한 결과, 모형 1보다 TLI가 높고 RMSEA가 낮은 모형 3이 보다 더 적합한 모형으로 밝혀졌다. 낙관성과 비관성의 두 잠재변수 간 상관을 가정하지 않은 2-요인 모형인 모형 2와 두 잠재변수 간 상관을 가정한 2-요인 모형인 모형 3의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유의하였다,  $\chi^2$  차이 = 61.988 ( $df$  차이 = 1),  $p < .001$ . 따라서 모형 2보다 모형 3이 더욱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되었다.

#### 낙관성, 비관성과 준거변인의 관계

낙관성, 비관성과 준거변인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LOT-R 총점, LOT-R 낙관성 점수, LOT-R 비관성 점수와 준거변인 측정치들 간 단순상관과 편상관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그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LOT-R은 낙관성과 비관성의 두 요인을 반영하나, 선행연구에서는 낙관성의 단일 측정치를 사용했으므로 LOT-R 총점도 상관분석에 포함하였다.

우선 단순상관 분석의 결과를 보면, LOT-R 총점과 심리적 변인 간 상호상관은 모두 중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높은 관계를 보였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LOT-R 총점과 진로태도성숙 변인 간 단순상관은 이보다 다소 낮았지만, 모든 상관계수들이 유의하였다. 긍정적 사고,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중심, 소망적 사고의 대처전략은 LOT-R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이루었으나, 긴장완화와 문제부인의 대처전략과 LOT-R 총점의 단순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LOT-R 낙관성과 LOT-R 비관성의 상호상관은  $r = -.45$  ( $p < .001$ )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LOT-R 낙관성 점수와 비관성 점수 각각이 준거변인과 이루는 단순상관은 준거변인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첫째, LOT-R 낙관성과 비관성이 심리적 변인과 이루는 단순상관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준거변인과 이루는 상관계수들은 낙관성과 비관성에서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둘째, LOT-R 낙관성과 비관성이 진로태도성숙과 이루는 단순상관은 진로태도성숙의 하위변인에 따라서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확신성은 각각 LOT-R 낙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나, LOT-R 비관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이루었다. LOT-R 낙관성이 진로독립성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는 반면에, LOT-R 비관성과 진로독립성 간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진로목적성은 LOT-R 비관성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LOT-R 낙관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LOT-R 낙관성과 비관성이 대처전략과 이루는 단순상관 역시 대처전략의 하위 변인

표 4. 낙관성, 비관성과 준거변인 간 단순상관과 편상관 (N = 534)

준거변인	LOT-R	총점	낙관성		비관성	
			단순상관	편상관 <sup>a</sup>	단순상관	편상관 <sup>b</sup>
심리적 변인						
자아존중감		.60***	.50***	.34***	-.54***	-.40***
우울		-.52***	-.39***	-.21***	.51***	.40***
불안		-.56***	-.47***	-.33***	.48***	.34***
긍정적 정서		.43***	.45***	.38***	-.27***	-.08
부정적 정서		-.36***	-.20***	-.02	.43***	.38***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26***	.24***	.18***	-.19***	-.10*
준비성		.22**	.25***	.22***	-.12**	-.00
독립성		.17***	.20***	.18***	-.08	.01
목적성		.15**	.09	.01	-.18**	-.16***
확신성		.55***	.47***	.33***	-.46***	-.32***
대처전략						
긍정적 사고		.33***	.34***	.28***	-.21***	-.07
사회적 지지		.21***	.22***	.18***	-.14**	-.04
문제해결중심		.35***	.35***	.29***	-.23***	-.09*
긴장완화		-.05	.03	.10*	.12**	.15***
소망적 사고		.11*	.18***	.20***	.01	.10*
문제부인		-.04	.02	.08	.10*	.13**

<sup>a</sup>LOT-R 비관성 점수를 통제한 편상관. <sup>b</sup>LOT-R 낙관성 점수를 통제한 편상관.

\* $p < .05$ . \*\* $p < .01$ . \*\*\* $p < .001$ .

에 따라서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대처전략들 가운데 긍정적 사고,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중심 전략 각각이 LOT-R 낙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는 반면에, LOT-R 비관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이루었다. 그러나 긴장완화와 문제부인의 대처전략이 LOT-R 낙관성과 이루는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반

면에, LOT-R 비관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LOT-R 낙관성과 소망적 사고 전략의 사용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에, LOT-R 비관성과 소망적 사고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 다음, LOT-R 낙관성과 준거변인 간 관계에서 비관성의 영향을 통제한 편상관과 LOT-

R 비관성과 준거변인 간 관계에서 낙관성의 영향을 통제한 편상관을 보면, 일부 변인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낙관성 또는 비관성과 준거변인의 관계가 여전히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성이 비관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리적 안녕, 진로태도,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준거변인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비관성은 낙관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준거변인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LOT-R 비관성을 통제한 후 LOT-R 낙관성과 부정적 정서의 편상관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LOT-R 낙관성을 통제한 후 LOT-R 비관성과 긍정적 정서, 진로준비성, 긍정적 사고 대처, 사회적 지지 대처의 편상관도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LOT-R 낙관성을 통제한 후 LOT-R 비관성과 소망적 사고의 편상관은 LOT-R 낙관성을 통제하지 않고 산출한 단순상관과 달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정서는 낙관성보다는 비관성과 유의한 관계를 맺으며, 긍정적 정서, 진로준비성, 긍정적 사고를 통한 대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대처는 비관성보다는 낙관성과 유의한 관계를 맺음을 보여준다.

## 논 의

이 연구는 청소년의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 일차원 상의 양극적 구성개념인지, 두 개의 독립된 구성개념인지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낙관성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Life

Orientation Test- Revised(LOT-R)를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청소년 534명에게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낙관성 및 비관성과 준거변인 간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에서는 낙관성과 비관성의 상관을 가정하는 2-요인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전후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Marshall 등(1992)은 낙관성과 비관성 두 요인의 부적 상관이 중간 수준에 불과할 경우에 두 요인의 완전한 독립성이나 완전한 관계성의 어느 것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Mroczek 등(1993)은 낙관성과 비관성 간에는 낮은 상관이 존재하므로, 두 요인의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처럼 연구대상의 연령층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일종의 발달적 현상으로 해석하여, 청년은 노인에 비하여 “문제에 대해 양극적 접근을 하며 흑백의 이분법적 견해로 현실을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Labouvie-Vief, 1992, Robinson-Whelen et al., 1997, p. 1351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낙관성과 비관성도 청소년 집단에서는 단일 차원 상의 양극적 구성개념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오스트레일리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Creed, Patton과 Bartrum(2002)은 2-요인 모형을 확인하였으며, 낙관성 잠재변수와 비관성 잠재변수의 상관이 .16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결과는 청소년 집단에서도 낙관성과 비관성이 별개의 독

립된 잠재변수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 잠재변수와 비관성 잠재변수의 상관을 가정하지 않은 2-요인 모형에 비하여 두 잠재변수의 상관을 가정한 2-요인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더욱 잘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2-요인 모형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의 두 잠재변수 간 상관이  $-.72$ 에 이르렀으며, 측정변수로 산출한 LOT-R 낙관성 점수와 LOT-R 비관성 점수의 상관도  $-.45$ 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낙관성과 비관성이 완전하게 독립된 두 개의 구성개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상관을 이루는 두 개의 구성개념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 준거변인들이 낙관성과 이루는 상관관계와 비관성과 이루는 상관관계의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났다는 결과에 근거해 볼 때 그럴 듯하다. 심리적 변인들과 낙관성 및 비관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결과는 선행연구(Creed, Patton, & Bartrum, 2002; Scheier & Carver, 1992)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특성이나, 긍정적 정서 또는 부정적 정서와 같은 기분을 반영하는 변인들은 LOT-R 낙관성, LOT-R 비관성 각각과 유의한 상관을 이루었으며, 낙관성과의 상관관계와 비관성과의 상관관계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나 부정적 정서는 덜 경험한다. 반면에 비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긍정적 정서를 덜 경험하나 부정적 정서는 더 많이 경험한다.

또한 일부 대처 변인과 낙관성, 비관성 각각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동시에 상관관계의

방향성에서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관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긍정적 사고,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중심의 적극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비관성 수준과 긍정적 사고,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중심 대처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심리적 안녕과 관련된 일부 준거변인과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일부 준거변인에서는 낙관성과 비관성이 단일 차원 상의 양극적 구성개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준거변인들과 낙관성, 비관성이 이루는 상관관계의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 준거변인들에서는 낙관성과 비관성이 별개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독립성 수준이 높은 반면에 비관성과 진로독립성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비관성이 높을수록 진로목적성 수준이 낮은 반면에 낙관성과 진로목적성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비관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장을 완화하거나 문제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거나 잊어버리려는 회피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낙관성과 이들 대처전략 간 단순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낙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망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비관성과 소망적 사고 대처의 단순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LOT-R 비관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LOT-R 낙관성과 준거변인의 편상관이 LOT-R 비관성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LOT-R 낙관성과 준거변인의 단순상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준거변인들에서 여전히 유의하였다. LOT-R

낙관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LOT-R 비관성과 준거변인의 편상관도 LOT-R 낙관성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채 산출한 단순상관과 마찬가지로 많은 준거변인들에서 여전히 유의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 진로태도성숙, 스트레스 대처의 일부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관성의 영향력에 독립된 고유한 것이며, 비관성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낙관성의 영향력에 독립된 고유한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LOT-R에서 '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를 반영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의 역채점과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반영하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총점으로 산출한 단일 측정치와 준거변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게 될 경우, 낙관성과 비관성 각각이 준거변인과 갖는 관계의 다양한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 가운데 일부(예, 유은상, 2004)를 제외한 다수의 연구(예, 김택호, 김재환, 2004; 신정원, 2002; 조하나, 2002)에서는 낙관성의 단일 측정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LOT 혹은 LOT-R에서 높은 점수는 낙관성을 의미하고, 낮은 점수는 비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비록 낙관성과 비관성이 어느 정도의 상관을 이루기는 하지만 두 개의 요인으로 존재하며, 이들 각각이 준거변인들과 이루는 상관관계의 양상이 다르며, 일부 준거변인에 미치는 낙관성의 영향력은 비관성의 영향력에 독립된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LOT 또는 LOT-R 총점으로 낙관성을 측정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낙관성 및 비관성이 청소년의 진로태

도성숙과 이루는 관계를 살펴보면, LOT-R 총점은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다섯 가지 하위변인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었지만, 진로독립성은 낙관성하고만, 진로목적성은 비관성하고만 유의한 단순상관을 이루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 기대를 갖도록 조력할 때, 자신의 진로문제를 부모나 교사 등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 기대를 갖지 않도록 조력할 때, 자신의 욕구와 현실적 요구를 조정하고 타협하여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진로탐색 개입 프로그램이나 진로상담을 실시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하여 낙관적 기대를 갖도록 조력하는 개입과 비관적 기대를 갖지 않도록 조력하는 개입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대상 청소년이 진로태도의 어떤 특정 영역에서 미성숙한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함을 보여준다.

선행연구(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 Marshall et al., 1992)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은 두 개의 독립된 차원이며, 사람들은 낙관성과 비관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다고 보고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낙관성과 비관성의 관계성과 독립성이 지지되는 양상이 심리적 안녕 및 진로, 스트레스 대처의 특정 영역에서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이 연구의 결과가 던지는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모든 자료를 자기보고식 지필 검사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측정변수

간 상호상관이 원래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보고,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낙관성, 비관성, 심리적 안녕, 진로태도 성숙도, 대처전략의 모든 자료를 단일회기 동안에 수집하였다. 낙관성과 비관성은 결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대를 뜻하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낙관성과 비관성이 미래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낙관성과 비관성의 영향력을 추적하는 종단연구는 낙관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비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심리적 적응과 진로태도의 성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역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 역경을 극복하고 적응적인 발달경로로 되돌아가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의 과정에서 낙관성과 비관성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관성은 외향성과 중복되며 비관성은 신경증과 중복된다는 논의(Scheier, Carver, & Bridges, 1994; Smith et al., 1989)가 제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증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채 낙관성, 비관성과 준거변인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외향성이 낙관성과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한 후 낙관성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검증하고, 신경증이 비관성과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한 후 비관성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서정선 (2002).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 및 가정배경 변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원 (2002). 성향적 낙관주의와 기분 상태가 만성 동통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상 (2004). 낙관주의 및 귀인방식과 건강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한종철 (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 정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35-349.
- 이영자 (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하나 (2002). 낙관성 수준에 따른 우호/적대상황에서의 대인관계도식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 Spielberg (2000). STAI-KYZ 자기감정평가 질문지. 서울: 학지사.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 161-177.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Chang, E. C. (2002). Introduction: Optimism and pessimism and moving beyond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 In E. C. Chang (Ed.), *Optimism and pessimism: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3-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ang, E. C., D'Zurilla, T. J., & Maydeu-Olivares, A. (1994). Assessing the dimensionality of optimism and pessimism using a multimeasure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2), 143-160.
- Chang, E. C.,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7).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s: Relationship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3), 433-440.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1), 42-61.
- Frydenberg, E., & Lewis, R. (1993). *Adolescent coping scale: Specific long form*. Melbourne, Australia: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 Marshall, G. N., Wortman, C. B., Kusulas, J. W., Hervig, L. K., & Vickers, Jr., R. R. (1992). Distinguishing optimism and pessimism: Relations to fundamental dimensions of mood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6), 1067-1074.
- Mehrabian, A., & Ljunggren, E. (1997). Dimensionality and content of optimism-pessimism analyzed in terms of the PAD temperament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5), 729-737.
- Mroczek, D. K., Shapiro, A., III, Aldwin, C. M., Ozer, D. J., & Bosse, R. (199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optimism and pessimism in older men: Findings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Health Psychology*, 12(5), 406-409.
- Robinson-Whelen, S., Kim, C., MacCallum, R. C., & Kiecolt-Glaser, J. K. (1997).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pessimism in older adults: Is it more important to be optimistic or not to be pessimist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345-135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2002). Optimism, pessim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 C. Chang (Ed.), *Optimism & pessimism: Implications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189-21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eier, M. F., Matthews, K. A., Owens, J. F., Magovern, G. J., Sr., Lefebvre, R. C., Abbott, R. A., & Carver, C. S. (1989). Dispositional optimism and recovery from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The beneficial effects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24-1040.
- Scheier, M. F., Weintraub, J. K., & Carver, C. S. (1986). Coping with stress: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57-1264.
- Smith, T. W., Pope, M. K., Rhodewalt, F., & Poulton, J. L. (1989). Optimism, neuroticism, coping, and symptom report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640-648.
- Strutton, D., & Lumpkin, J. (1992).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coping strategies in the work environment. *Psychology Reports*, 71, 1179-1186.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원고접수일 : 2005. 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5. 27.

게재결정일 : 2005. 6. 10.

## Testing the One-Factor and Two-Factor Models of Optimism and Pessimism in Korean Adolescents

Hyeonsook Shin                  Jeonghee Lyu                  Myoungja Lee  
Departmen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adequacy of fit of the one-factor and two-factor models of optimism and pessimism, defined as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 expectancies. We also examined the differential patterns of correlations between separate optimism and pessimism measures and several criterion variables such as psychological well-being(i.e., self-esteem, depression, anxiety,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oping(i.e., positive reframing, seeking social support, focusing on problem-solving, tension reduction, wishful thinking, denial).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existence of two factors, optimism and pessimis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yielded the results that the two-factor model of optimism and pessimism as related constructs fits the data best. There was a moderate degree of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optimism and pessimism. Zero-order correlations showed that those with higher optimism reported the higher levels of wishful thinking and independence in career decision, which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pessimism. Those with higher pessimism reported the higher levels of tension reduction and denial and the lower levels of career goal-directedness, which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optimism. However, those with higher optimism reported the higher levels of self-esteem, positive affect, career decisiveness, career preparedness, career confidence, positive reframing,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focused coping, which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ssimism. Those with higher pessimism demonstrated the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xiety, and negative affect, which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optimism. Further, partial correlations between optimism and criterion variables after controlling for pessimism, and partial correlations between pessimism and criterion variables after controlling for optimism remained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support for the idea that optimism and pessimism are differentiable, but somehow related, constructs. Implic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on optimism and interventions for adolescents experiencing psychological distress and career-related problems were discussed.

*Keywords* : optimism, pessimism, psychological well-being, career maturity, coping